

## 韓國傳統染織物の 時代別 考察

金 芝 希

曉星女子大學校

### 韓國 傳統植物染色의 時代別 考察

#### 1. 上古時代

獸皮나 樹皮로 몸을 가리고 生活을 했을 舊石器時代 韓半島에서는 雄基郡 松坪洞 種城行營城 地境洞의 遺蹟에서 鐵製바늘만큼 가는구멍이 적은 骨針이 出土되었으니 이것은 衣料를 만들기 위한 編織術의 始作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의 先祖인 5000餘年前에 定着한 新石器人들은 低級한 原始狀態 衣料生活은 벗어났다. 또한 이들이 製作한 丹塗麻研土器의 製作은 中國甘肅城과 河南城의 彩色 土器文化의 輸入으로 이 色料의 採取 및 應用은 色衣料 實施의 可能性도 생각할 수 있다.

三國時代以前부터 土, 草汁, 朱砂등의 植物性染料 또는 광물성염료등을 使用하여 천연에 도포하는 染色法이 있었다는 것은 쪽물염색도 가능했으리라는 추측을 더욱 確실하게 할 수 있다. 다만 下記 記錄으로 미루어 그 製造方法이 모든 서민들이 다 使用할 수 있는 간소한 방법은 아니었다고 짐작된다.

「朝鮮衣服悉隨中國」이란 記錄으로 미루어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箕子朝鮮때에 中國의 染色된 衣服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立證할 수 있으며 이것으로 미루어 箕子朝鮮때부터 染料를 使用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海東釋史, 권20, 권18).

三國時代에는 多様한 織物이 文獻에 나타나니 다음과 같다(조선총독부중구원, 풍속관계자료제요(1945)).

三國志의 魏志 東歲 「有麻布蠶桑作綿……」

同志 韓傳 麻韓條 「其民土着種植 知桑綿布」

同志 韓傳 弁辰條 「土地肥美 宜種五穀 乃稻曉蠶桑作縲布……赤作廣幅細布」

同志 韓傳 辰韓條 「……俗饒蠶桑善作縲布服」

以上에서 綿布, 綿(絹을 말함)등의 絹織物과 縲布, 廣幅細布 등의 麻織物이 生産되어 倭 및 韓四郡과의 交易이 이루어졌으며,

後漢書更夷傳에 미루어 보면

「弁辰衣服潔清衣服禁青 衣服潔清作度幅細布長髮」

染料를 쪽물로 가정한다면 쪽물의 기원은 三韓時代에 이미 製造가 可能했으리라는 推測을 할 수가 있다(泥泮 後漢書 권115).

魏志 東夷傳 夫餘에 「在國衣尙白 白布大袂袍 覆革鞜出國則 尙繪繡錦……」(石宙善, 한국복식사).

弁辰에서 青色을 禁한것은 青色이 빈번히 使用되었음을 말함이니, 우리의 제일 처음 染色이 青色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의 시기와 같은 시기의 扶餘에 관한 記錄을 보면

「扶餘在國衣尙白白布大袂袍袴履革鞜出國則 尙繪繡錦蜀大入 狐狸獨自黑名之表以金銀飾帽 其出便乃衣錦蜀以金銀飾腰」<sup>10)</sup>라하여 扶餘에서는 白色옷을 尙상했다고 했는데 이는 染料製造가 쉽지않은 그 시기로써 백색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어쩔수없이 染色하지 않은채로 입을수 밖에 없었던 그때의 실정을 推測할 수 있다. 染色옷을 입는 신분을 제한한 제도로는 고려 服飾史에 이르러 지적됨을 보아도 알 수 있다(李能和, 朝鮮女俗考).

扶餘에 있어서는 繪, 繡, 綿蜀의 多様한 衣料에서 染色이 實施됨을 알 수 있고 當時 養蠶이 成行했던 扶餘에서 絹織物을 많이 織布하였으나 이런 高級織物을 織布했는지는 疑問이다. 織布의 記錄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中國에서의 輸入品을 들여와 官吏들이 입고 外國에 사진으로 나갔던듯하다. 그러나 染織物의 輸入은 自國의 染織發達을 促進시키는 意義가 있는 것이다. 特히 錦은 紋樣을 짜넣은 布를 말하며 釋明釋采帛에 「錦金也 作文用功 重其價如金 故其制字從帛與金也」라고 하여 金같이 귀히 여기던 것으로 西洋에서는 일찌기 織造되어 잉카 遺蹟에서도 發掘되고 있다(李如星, 조선복식고).

#### 2. 三國時代

三國時代에 접어들면서 染料는 보다 多様하게 사용된것 같다. 벽화나 후대의 記錄을 미루어보면 三國時代와 新羅 統一時代에는 다수의 화공이 있었던것 같다. 이 時代에 殿閣, 墳墓, 사원의 벽화가 유행한

것은 대체로 중국과 같았으리라고 추측된다. 더욱이 신라에는 彩典(삼국사기 卷三八 雜志士 職官上)이라는 관서가 있어 경덕왕대에 그 이름을 바꾼일이 있다고하니 彩典의 設立은 경덕왕 以前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彩典의 담당한 역할을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畫院 즉 후세의 圖畫書같은 관청이 있었으리라고 짐작되며 衣服의 염색뿐만 아니라 벽화나 회화에도 사용했던 것 같다. 다음은 문헌에 의해 三國時代를 時代別로 열거하면

### 1) 高句麗：三國史記에

「高句麗王羅冠綠衣草布金釧大臣青羅冠次絳 珥兩烏羽金銀雜釧衫篇 夸大口百偉 帶黃革羅庶人衣褐數弁女子首巾幘」<sup>13)</sup>라하여 高句麗의 王은 비단관에 錄衣를 입고 金和가 붙은 革帶를 띠었으며 大臣은 青羅冠이나 羅珥를 쓰는데 양옆에 새깃을 꽂고 金銀으로 장식하였다한다(金富軾, 삼국사지 권33). 고구려에와서 쪽물의 染色은 비록 상류계층에 국한됐지만 널리 쓰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高句麗에 있어 三國志 魏志 東夷傳 高句麗條에 「十月 以天禁……其公 會衣服 皆錦繡……」(朝鮮總督府, 中樞院, 前揭書).

新舊唐書 東夷傳 高句麗條「王服五采 白羅冠 綠衣草帶 金和 大臣青羅冠 次絳羅 珥兩烏羽 金銀雜和釧衫篇 裏大口白韋帶 黃革履 庶人衣褐 戴弁女子首巾幘」(石宙善, 한국복식사 18-19)

周書 高句麗傳「……其冠國蘇骨多用紫羅爲六……」

高句麗 服色을 살펴보면 新唐書 東夷傳 高句麗條에 의하면 「王服은 五彩服이며 王冠은 금테를 두른 白羅冠이었고 여기에 역시 金釧를 장식한 革帶를 띠었으며 大臣服은 青羅 烏羽冠, 一般官人은 絳羅烏羽冠에 모두 金銀으로 장식한것을 썼고 衣服은 筒褌衫에 大口袴를 입었으며, 여기에 白革帶를 띠고 黃革履를 신었다. 그리고 庶人은 褐衣를 입고 弁을 썼으며 女子는 머리에 巾幘을 하였다」(류희경, 1975). 여기서 五彩로 표현된 高句麗 往復의 服色은 陰陽五行說에 의한 服色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또한 褐衣로 표현된 庶民의 服色은 素色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高句麗 服色을 알려주는 또 다른 하나의 記錄으로 舊唐書 音樂志 高句麗條에 의하면 「樂工들은 黃色大袖에 紫羅帶를 띠고 무용가들은 黃色裙儒, 黃色袴를 極長其袖로 착용하였다」 또한 高句麗 服色은 中國의 史書의 記錄외에 현존하고있는 각종 고분벽화에서도 희미하게나마 그 실상을 엿볼 수 있다. 高句麗 고분벽화에 나타난 服色을 도표화하면 <표1>과 같다(조효순, 1988).

그리고 夏期의 高句麗 古境壁畫 風俗圖를 통하여

衣服의 形態, 着用方法, 服色 및 그에 나타난 當時의 紋樣까지를 알 수 있다.

- ① 大同郡 鎧馬塚人物服  
上衣 赤地 黑圈紋  
袍燦 紫地 白色斜格紋  
袍選 白地 點襖紋 雙點紋
- ② 江西郡 聯室塚人物服飾  
裳 白地 紅線紋  
帶 白地 紅二三重橫線紋
- ③ 江西郡 梅山里 古墳人物服飾  
上衣 藤黃地 黑點紋  
袍 藤黃地 黑唐草紋  
袍 皂色地 紅曲線紋  
褶 藤黃地 黑雙點紋
- ④ 通溝四神塚人物服  
袴 暗紫地 紅色雲紋
- ⑤ 通溝角觚塚人物服飾  
袴 暗青地 黑點紋  
袴 藤黃地 紅點紋
- ⑥ 通溝舜蛹塚人物服飾  
袴白地 黑點紋(大點 紋周圍에 小點紋)  
袴 藤黃地 紅點紋  
襦 藤黃地 紅點紋  
襦白地 黑點紋  
袍 白地 紅點紋(大點 紋周圍에 小點紋)

以上에서 赤, 紫, 紅, 藤, 黃, 黑, 皂, 暗, 青, 暗紫는 一般服飾色에 對한 記錄보다 풍부한 色衣生活와 따라서 보다는 많은 染料의 채취 및 使用을 보여주는 것이다. 紋樣은 點紋을 비롯해 大點紋周圍에 小點紋의 施紋을 많이 하였으니 이는 三國時代에 各種 工藝品에 實施하였던 紋樣으로 鏡, 瓦, 鍾 등에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 紋樣을 布에 施紋하던 方法에 있어서는 新羅 記錄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纈纈이나 纈纈이다. 上記 내용은 「歸化人에 의해서 織造 또는 染色된 것과 朝貢品으로 갔던 것들이 수장되어 있는 正倉院 遺品中 同時代織物 紋樣이 거의 纈纈, 纈纈, 膜纈에 의해서 製作된 것을 보아 明確한 것이다.

日本 天平代 東大寺 獻物帳에 高麗錦이란 記錄은 高句麗에서 織造된 錦이 渡江된 것이다. 即 天平代는 534~537年으로 高句麗와 同時代이다.

翰苑番莢部 高句麗條에 「雲布錦, 五色錦, 紫地纈紋錦 織造……」에서 아름다운 錦織이 여러 형태로 직조되며 錦織物에 纈纈, 纈纈, 膜纈染 中의 어떤 方法을 써서 紋樣을 주었음을 말함이다.

高句麗에서는 풍부한 色의 染色術이 發達하였으며

表 1.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服色

고분명	연대	색	벽화인물	유(儒)
안악3호	357	황갈색 황갈색	노동녀 동수묘	포(袍) 포(袍)
덕흥리 고분	408	황갈색 황록색 백색 백색 황색 황색	기마인, 우차부, 마사회도 시녀, 우차열시녀, 현실시녀 왕녀(王女) 직녀(織女) 시자(侍者) 신선	" " " " " 유(儒)
수산리 고분	5C	흑색	두남자와 여인	포(袍)
감신총	5C	자색 백색 적색 토황색(홍점무늬) 흑색	주방도 시중 인물도 수렵도 기마인 정좌주인(正座主人) 여인도	" 유(儒), 고(袴) 포(袍) 고(袴)
쌍영총	5C	백색(흑점무늬) 백색(홍색점무늬) 백색 주홍색 줄무늬 적갈색	기마도 인물 기마도 인물 여인도 차마도 기마 찰감무사 주실 북벽	유(儒) 고(袴) " 찰감 포(袍)
개마총	6C	홍색 적색 자색 도황색	쌍각안 인물상 마부 마부 마부	유(儒) " " "
무용총	5C	흑색 백색(홍무늬) 두록색 회색(홍무늬)	인물도 무용도 주실 북벽	포(袍) " "
사신총		회색(흑적무늬)	부부도	포(袍)
각저총		황색(홍색점무늬)	전별도 부부도	고(袴) "

여러방법으로 紋樣도 나타내는 染色이어서 浸染으로 그친것이 아니다. 이런 풍부한 염색술에 의한 염색 실로 아름다운 고급직물 錦을 짰던 高度의 織造技術을 가지고 있었다(이양섭, 한국식물염색고, 208-209). 그리고 高句麗에서는 上記의 紋纈의 技法은 이미 新染法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高句麗 服色에 사용된 色은 赤·黃·靑·白·黑·紫·綠·粉紅色 등으로 植物染料인 藍(쪽), 茜根(쪽두서니), 紅花(잇꽃), 梔子, 그 밖에 나무를 태워 우려낸 汁을 사용했던 것으로 推測할 수 있다.

## 2) 百濟

百濟는 部族國家中 中國文化의 影響을 가장 많이 받은 馬韓을 基盤으로하여 건립된 國家였던만큼 일찍부터 中國의 公服製度를 받아들여 직급에 따른 服色의 區分이 어느정도 되어있었다. 즉 백제사회(B.C. 180~660年)에서는 古爾王(235~285)때 冠, 衣帶, 色彩로 尊卑貴賤의 身分계급을 가리었으니 그 服色을 通하여 染色의 實態를 推測할 수 있다.

「王服大襲紫袍靑錦袴素皮帶烏革履烏羅冠飾以金膜羣臣緇衣飾冠以銀喝禁民衣緇紫」(區陽修, 唐書 권 220).

古爾王 27年(260) 正月에 百官들의 品位를 制度化 하고 二月에는 服色을 定하였으니 이것은 우리民族 最初의 公服制度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東海釋史에 따르면 이때의 계급별 服色은 모두 緋色이었으며 帶色은 一品에서 七品까지가 紫色, 八品이 白色, 九品이 赤色, 十品이 青色, 十一品과 十二品이 黃色, 十三品부터 十六品까지가 白色이었으며(류희경, 1975), 新唐書 東夷傳 百濟條에 王服은 大袖紫袍에 靑白袴를 착용하고 여기에 素皮帶를 매었다(석주선, 1971) 라고 하였듯이 紫色, 靑色 등으로 되어있었다. 그리고 王을 비롯한 官료들의 服色이 붉은색 계통이며 이당시 많이 사용한 색은 紫·赤·靑·黃·白·緋色 등이다. 백제시대의 특징은 一般庶民에게 紫衣와 緋衣着用을 禁함으로써 治者와 被治者의 구별을 뚜렷이 하기 위하여 後世에 禁色이란 法을 남겼다. 그리고 百濟王室에는 公奴婢가 있어 官에서 必要로하는 織物을 비롯한 手工業品 全般에 걸친 物品을 生産하였다. 이 들중에는 樂浪이 滅했을 때 많은 官人과 從者들이 亡命해와서 高度한 漢의 文化生活을 營爲하던 生活方式와 技術로서 百濟文化를 向上시키는 큰役割을 하였다(浜口良光, 朝鮮의 工藝).

隨書 卷81 百濟傳에서 新羅, 高句麗, 倭, 中國人 等 많은 外國人이 國內에 머물러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國際的 開放政策이 高度한 中國文化의 輸入 및 他國과의 文化交流에 따른 文化向上을 수반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即 中國의 染織文化 輸入으로 高級 絹織物이 織造되었으며 錦織物의 技術은 보다 向上되어 國內에서의 愛用的 風潮가 濃厚했으며 中國과의 交易品目에서보면 中國으로 역수출 한것을 알 수 있다.

日本書記 神功皇候 46年(AD. 246年)에는 百濟의 尙古王이 日本使者에게 五色綬絹을 보냈고, 日本書記 學田天皇(應神天皇) 14年(AD. 283年)에는 百濟王이 縫衣工女를 보내서 지금의 衣縫의 始祖가 되었다 하였다(浜口良光).

仁德天皇 17年(AD. 329年)에는 調絹 一千四百六十一疋과 其他 雜貨를 八十盤의 船舶으로 運送하였다 하였으니 많은 染織物을 비롯하여 百濟 文化遺産이 日本으로 건너갔다(류희경, 1975).

또한 日本은 文化遺品 輸入으로 文化向上을 시도 하였을 뿐아니라 人的資源까지 百濟에서 輸入하기에 이르니 錦部의 定安那를 비롯하여 織工, 縫工 등의 匠人이 日本에서 技術指導를 하기에 이른다. 欽明天皇(AD. 539~571)의 朝廷에는 百濟王 聖明이 毛氎一領을 헌납해서 처음으로 짐승의 털로서 옷만드는 것을 日本에서 알게 되었다.

이런 毛織物과 함께 錦이 物品貨幣로 使用되었으니 이렇게 織物이 一般化 되었다함은 家內工業으로 어느 家庭에서나 織造가 가능했으며 따라서 織物手工業의 復興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三國史記 唐書에 「百濟其王服大袖紫袍靑 錦袴鳥羅冠飾錦花素皮幣鳥帶履……」

三國史記 三十三 北史 周書 異域傳 百濟條에 「…官十六品이 있으니……六品以上은 冠에 銀帶를 꽃고 將德七品은 紫帶, 施德八品은 白帶, 固德九品은 赤帶, 季德十品은 靑帶, 對德十一品과 六德十二品은 모두 黃帶, 武督十三品, 佐運十四品, 振武十五品, 克虔十六品은 모두 白帶」

舊唐 列傳 東夷傳 百濟에 「官人畫緋爲衣」

以上에서 紫·靑·白·赤·黃의 染色의 實施와 緋色(黃赤) 紋樣이 나타남은 當時 高句麗의 纈紋織物織造와 後에 新羅에서 보이는 三纈染에 紋樣과는 三國間의 文化 交流의 빈번함으로, 같은 방법으로 施紋을 한 織造染色物이 있었다.

### 3) 新羅

신라는 백제나 고구려보다는 뒤늦지만 나라가 강대해짐에 따라 百姓과 支配階級사이의 身分의 격차를 뚜렷이하는 禁色이 더욱 확고하게 굳어졌다.

「新羅朝服尙白」「新羅衣服略與高句麗百濟同」「新羅法興王制自大角干至大阿食阿食紫衣阿食至級食緋衣並牙物大奈麻靑衣大舍至先 知黃衣」「伊食布食錦冠波珍食大阿食衿荷緋冠上堂大奈麻赤位大舍組纒」한 치연, 海동역사 권28).

신라 역시 「新羅朝服尙白」이라하여 白色은 尙상한 것으로 기록되었으나 이는 紫色의 一般의 보급이 어려웠다는 당시의 실정과 禁色이 철저히 지켜졌던 것을 시사한다.

「王始制百冠公服用朱紫大阿食則緋巾食則錦冠大舍組纒」(권장, 海동잡록)라하여 靑衣, 黃衣, 緋冠, 組纒 등을 使用하여 衣服을 染色했는데 이는 미학적인 고려에서보다는 계급의식의 발로로 볼 수 있다.

新羅時代에는 地理的으로 中國과의 交通이 불편하여 文化의 發展이 늦은 반면 獨自의 文化를 이루었으나 百濟나 마찬가지로 農民겸 手工業者들으로써 麻布, 絹, 絲布를 織造하였다. 中國, 日本과의 交易品과 貴族에게 支給하는것은 冠營工匠이 製作한 것이었다.

新羅에서는 職官중에 染官을 두고 衣布 등의 染色을 맡아보는 十一人의 染匠을 두었음이 三國史記에 보이며, 또한 染谷典이란 명칭도 보이는데 이것은 天然植物染料의 栽培와 收穫, 또는 栽培地와 採取地의 관리를 맡아보던 職官임을 추측할 수 있다(맹인재, 1979).

三國史記 雜誌 色服條에 따르면 第23代 法興王(514) 色衣에 따른 公服制가 적용되었는데 一階인 二伐餐으로부터 五階인 大阿餐까지가 紫色, 六階인 阿餐으로부터 九階인 級伐餐까지가 緋色, 十階인 大奈麻에서 奈麻가 青衣, 十二階인 大舍에서 造位까지가 黃衣였다. 특히 法興王 9年(834)에 내린 服飾禁制의 內譯을 살펴보면 그 가운데 重炎法에 의하여 만들어진 間色들로 黃, 紫, 紫粉, 金屑, 滅紫, 翠碧, 壁紫 등의 色名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衣服色彩가 얼마나 찬란하였으며 植物染料의 種類가 多様함을 알 수가 있다(김용술, 1991).

新羅에 있어 色에 對한 記錄으로는 炤智王代(AD. 479~499)에 서민이 錦繡 色絹을 着用했다는 記錄이 있으나 그 훨씬 이전 2C에 나타나는 錦은 色糸로 이루어진 것이 많으니 4C의 活潑한 染色術은 훌륭한 것으로, 훨씬 以前의 染色을 實施하였음을 알 수 있다. 新羅服制에 나타난 色衣를 통해서 新羅의 染色 發達狀況을 다음에 들어 보겠다(석주선, 1971).

三國史記 法興王條 「法興王制 自太대角干至大阿滄紫衣 阿滄至級滄緋衣 併牙笏至大奈麻青衣 大舍至先沮知黃衣」

興德王 服飾禁制에서 重要染織物만을 뽑아보면 眞骨과 그 子女는 表衣에 禁罰繡錦羅, 內衣에 禁罰繡羅, 六頭品女袴에 禁德繡錦羅罰羅金泥, 內裳에 禁罰繡錦奈野草羅, 表裳에 禁罰繡錦羅總 羅罰草羅金銀泥纈纈, 內衣에 禁罰繡錦野草羅, 階當에 禁罰羅錦羅布紡羅野草羅金銀泥, 五頭品女 表衣에 用無文獨識袴에 禁罰羅羅羅野草羅錦泥, 內裳에 禁罰羅錦野草羅金銀泥纈纈, 表裳에 禁罰繡錦野草羅總金銀泥纈纈 內衣에 用小文陵, 半臂에 禁罰繡錦野草羅總羅, 階當에 禁罰羅錦野草羅布紡羅金銀泥纈纈, 四頭品女 袴에 用小文綾施絹, 腰帶에 琴繡組野草羅乘天羅越羅 用絹紬라 있으니, 禁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實際로 着用하고 있다는 內容이겠다. 따라서 新羅織造物에 罰繡錦 錦羅野草羅 總羅 布紡羅 乘天羅 越羅 無文獨識 小文綾施絹 金銀泥 纈纈 등의 各種 織과 施紋事實을 볼 수 있으니 이들이 紫, 緋, 靑, 黃 等 色相으로 되어 있다. 이중 纈纈染은 十萬點이 넘는 正倉院 古裂中 三百餘扇이나 되는 纈纈 膜織의 屏風에서 볼 수 있어 纈纈과 함께 찬란했던 新羅의 染織文化를 추측할 수 있다.

天武天皇 8년에는 新羅로부터 絹과 旗를, 同10년에는 또한 新羅로부터 錦, 絹, 細布, 霞錦, 幡 등을 가져갔다 「持統天皇 2年 新羅의 金霜林이 彩絹, 金銀彩色의 各種 珍異品 80餘種을 가지고 건너갔다」 그리고 日本 書記, 古事記 등에는 곳곳에 우리나라로부터 染織工人이 일본에 건너갔다는 기록이 있어 三

國의 染術이 상당히 발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류희경 1975).

이상 三國時代 服飾에 나타난 色名으로 미루어 볼 때 藍, 紅花, 꼭두서니, 蘇枋木, 梔子 등을 使用하여 彩色한 것임을 추측할 수가 있다. 또한 三國文化와 密接한 關係를 갖고 있던 日本書紀에 나타난 記錄에 의하면 「神功皇后 46年 百濟의 第5代 肖古王은 日本서 온 使者에게 五色彩絹을 실려 보냈다」

「仁德天皇 17年 百濟에서 調絹 1460匹과 기타 雜貨를 80雙을 船舶으로 日本에 運送하였다」(류희경, 1975).

이상의 三國時代의 記錄을 綜合하면 첫째 一般 庶民에게 있어서는 染料의 보급이 안된 상태에서 天然 섬유 그대로를 입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백색을 숭상했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게 된다.

따라서 染料의 開發이 원활하지 못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支配 階級은 대체로 靑色 계통의 염료로 염색을 한 옷을 입었다는 사실이 나타나는데 이는 일찌기 「쪽물」의 製造가 可能했으며 비교적 발전된 기술로 사용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세째 染色으로 복식의 염색이 활용된 이유 때문에 널리 사용될 수 없었고 이러한 저해 요인 때문에 「쪽물」의 廣範圍한 제조가 不可能했다는 점이다.

結論적으로 三國時代에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된 빛깔은 靑色 계통인데 이것이 深靑色, 玄色, 鴻靑色, 반물, 靑色, 쪽물 등으로 나타나는데 결국은 같은 색의 농담의 차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쪽물의 染料로 했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참고적으로 삼국시대에 靑色 계통 쪽물을 染料로 한 빛깔이 使用된 말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석주선, 1968).

「駕洛記贊」에 의하면 단 紫色 끈이 내려와(삼국유사, 188) 「당나라 太宗이 붉은색, 자주색, 흰색의 세 가지 色으로 그린 모란과 그 씨앗을 보내와」 「금벽(金碧) 금색과 靑色이니 화려한 색채를 이룬다」(삼국유사, 254).

「五色光明: 부처나 보살의 몸에서 나오는 靑, 黃, 赤, 白, 黑의 五色, 五色光明을 뜻하는 色으로 이것은 오행사상에 의한 것이니 즉 동쪽은 靑色, 火人 남쪽은 赤色, 金人 서쪽은 白色, 水人 북쪽은 黑色, 土人 中央人은 黃色으로 구분 배치하고 있다(삼국유사, P313). 「우물에서 나올 때마다 푸른 옷을 입은 新童이 먼저 솟아 나왔으므로 절의 중이 이로서 그 때를 알게 되었으며 (우물가에서) 나와도 그 옷이 젖지 않았다」(삼국유사, 349). 「바위 아래 몸을 던지니 靑衣 童子가 손으로 받들어 돌위에 올려 놓았다」(삼국유사, 349)

라는 說話에서 色名과 色の 性質까지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高麗時代

高麗時代에 와서는 統一新羅의 政權이 순조롭게 이양된 고려는 文化도 新羅文化의 계승이라 할 수 있을만큼 大差없는 現狀이 나타난다. 王의 服色이 新羅와 같은 紫黃色으로 말엽인 32代 禡王이전(1375)까지 변함이 없었다. 그러다가 禡王代에 이르러 明에 대한 이등체강원칙에 따라 紫黃色 왕복이 大紅色으로 변했던 것이다(류희경, 1975).

그러나 公服은 개국초에만 신라의 제도를 따랐을 뿐, 제 4대 光宗11年(960)에는 새로이 公服을 정하였다. 이 때 제정된 公服制를 보면 高麗時代의 色을 살펴볼 수 있다. 元尹이상이 紫衫, 中檀卿 이상이 緋衫, 小主簿 이상이 綠衫로 되어 있으며, 官府에서 직영하는 수공업체 가운데 織染局, 都染署를 따로 設置하고, 宮中에서 필요로 하는 染料의 確保와 染色을 맡아 보게 하였는데 덕종 3年(1034)에는 御衣에 물들일 원료로 紅芝草 1년치를 確保하고 민간에의 유포를 금지한 일도 있다(석주선, 1971). 또 鷄林地에 「高麗에서 染色을 잘하는데 紅色과 紫色이 더욱 묘하고 紫草뿌리의 굵은 것은 모란뿌리 만큼 굵고 이것의 汁을 짜서 비단에 물들이면 빛깔이 매우 鮮明하다」(손직, 계림지)라고 하였고, 「高麗에서 각종 아름다운 무늬의 비단을 잘 짜서 染色 또한 전보다도 우수하다」라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高麗時代의 植物染料 染色은 그 以前보다 많은 수의 染色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서궁, 1972).

다음 문헌에 의하여 染織의 歷史 및 制度를 기술하면, 高麗史 卷七十七百官志 外職 西京留守條에 圖書院이라는 관서의 명칭이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中史에 書院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전해지는 美術品은 希貴하지만 대체로 活潑한 美術活動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活潑한 美術活動은 저질로 染料의 發達에도 많은 촉진제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 時代에 와서는 前代와 달리 服飾에 禁色의 제도가 강경하지 않아 좀더 다양한 복식을 갖출 수 있었던 것 같다. 東夷會綱三에 보면 風俗이 漸漸奢侈하여 冠服制度가 瞬昧하니 王이 이를보고 下教하기를 사람에게는 上下가 있고 尊卑의 차별이 있고 家門과 門閥에 따라 衣服에도 差異가 있는 즉 民心이 점점 薄해지면서 奢侈로운 것만 다루어 崇尚하고 오직 異常스럽고 珍貴한 것만 좋아하니 한심한 일이라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추측하건데 아마 一般 百姓에서도 의복에 染色을 하는일이 성행했건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可能하게 한다.

그렇지만 후대에 와서는 다시 계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의 染色이 행해졌다는 記錄이 나타난다.

「高麗衣冠倣中朝悉以紫文羅袍紗製 頭玉帶佩金魚惟官至太史太尉中書令尚書令者服之國相之服紫文羅袍毳文金幕仍佩金魚待中太尉司從中書門下侍郎平章事參知政事左右僕射政堂文學判尚吏部事樞密使副同知院奏事等通許服之近侍之服紫文羅袍御仙金幕仍佩金魚自左右常侍御史. 大夫左右丞六尚書翰林學士承旨學士以上級低待國朝使明伴接館伴官悉服之從官之服紫文羅袍御仙金幕御史中丞諫官給事侍即州牧留守使副門執贄尚直官都知兵馬四部護使等悉之王之世子及王之兄弟亦然鄉監之服紫文羅袍紅鞞犀帶仍佩銀魚司業博士吏館校書太醫司天兩省錄事以上悉服之其階官亦限 限年數必待遷升而後改易庶官之服綠衣木笏頭烏鞞自進士入官省曹吏州縣令尉主簿司宰等悉服之」(서궁, 1972).

이 記錄으로 판단하건데 階級 官職에 있어 年限, 轉勤, 昇給에 따라 移動되면 衣服모양을 달리하였던 것 같다. 이때 사용된 빛깔이 대체로 靑色, 紫色이 中心되었던 것 같고 靑色의 染料은 쪽물이었을 可能性이 크다. 庶官의 복색에도 綠衣, 木忽, 幘頭, 黑帶를 着用하였고 從官의 服色은 紫色袍에 金帶를 着用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이 時代는 옷감 染色이 前 時代에 比하여 普遍化된 것 같다.

「高麗吏職之服與庶官服色不異但綠衣有深淺舊傳高麗倣唐制衣碧令詢之非也蓋其國貧俗儉一袍之費動準白金一斤每經澣濯再染色深如碧非是別一等服也然省府補吏不限遺品貴家之弟時亦爲之令此靑服當是吏之世襲者耳」(서궁, 1972).

吏職의 服色 또한 庶官의 服色과 다를바 없었으나 綠衣의 深淺이 있었다한다. 이 기록의 주목할만한 것은 고려조에서 옛부터 傳해지던 唐制가 사라진 것 같다는 사실이다. 즉 碧色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사실을 증명하는데 이는 기록이 있는 이유대로 가난하기 때문에 袍하나 마련하는데 白金一斤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하니 손쉽게 구입하기가 힘들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래서 한번 구입한 袍를 자주 빨아 입었기 때문에 그빛깔이 深靑 혹은 碧色을 띠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당시에 染料의 製造가 퇴색 변색을 방지할 정도로 증열처리 등을 하지않아 수준급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늠케 한다.

그러나 一般百姓의 衣服에는 染色을 엄격히 제한하여 禁하는 상소가 잇달아 행해지므로 一般百姓들에게는 染色한 옷을 입는것이 수월하지 못했다.

「臣聞三韓衣服之制不聞染色唯以花文爲禁故有御史  
 稽祭民服文屎花綾 者斷罪罰物民庶遵守不敢慢令舊俗  
 女子之服百綺黃裳自上公族貴家下及民及民庶妻妾一  
 繫無辨項勢貢使 忽開獲朝廷賜予十等冠服遂以從化令  
 王府與國相家頗有華風更遲以歲月當如偃矣」(서공,  
 1972).

이상의 기록을 종합하면 고려사 卷八十五의 記錄에  
 있는 것처럼 고려시대 역시 白衣를 崇尚했던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던 것 같다.

이것은 朝鮮時代に 연장되는데 아직까지 染色은  
 지배계층에만 제한되어 있어서 染料의 개발이나 製  
 造法에 대한 전승 발전이 있지 못했고 일반화 되지도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쪽물 제조 또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은밀하게 전승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高麗의 商工業을 크게 둘로 나누면 官營工  
 業과 私營 公업이다. 私營 工匠織物인 貴族奢侈使用  
 後 剩餘生産物을 交換市場에서 소비하게 하였으며  
 僧尼도 手工業 生産을 하였으니 여성에 의해서 寺院  
 에서 織造된 織物은 朝貢 및 僧侶, 奴婢의 衣料에 充  
 當하였으나 染色織物은 없었다.

官營 工匠組織 中 染織關係部署만 들면 다음과 같  
 다. (예용해) 掌服署 (一名 尙衣局)은 御衣를 奉供하는  
 機關으로 緒匠, 幘頭匠, 靴匠, 帶匠, 鞞鞋匠, 笏袋匠  
 등을 관장한다. 都染緒는 御用染料의 製造 및 染色을  
 맡아보는 機關으로 染色工과 染料工이 이에 隸屬된다.  
 卽 이속에서 朱黃, 淡黃, 紫, 丹, 緋, 藍, 綠, 靑, 烏靑  
 等 色이 染色되었다. 雜職署에서는 特殊織物의 生産을  
 擔當하니 錦匠, 繡匠, 羅匠, 菱匠, 繭匠, 等 特殊織物  
 工이 隸屬된다. 掖廷局(掖廷院)은 宮廷에서 特殊任務  
 를 擔當하는 機關으로 主로 高級織物의 織造를 하였  
 으니 錦匠, 繡匠, 羅匠, 菱匠, 絹匠 등의 職工이 이에  
 隸屬된다.

高麗에서는 이런 工匠運營으로 一部 特殊층을 爲한  
 것이거나 染織活動을 活潑히 하였다.

麗初에는 服制를 定하지 않아 經濟가 허락하면 任  
 意로 品職이 없는 사람도 菱羅錦繡를 着用할 수 있  
 으며 庶人은 紋彩紗段의 着用이 可能하나 단 紬絹에  
 한하였다. 그러나 神宗 三年(A.D. 120年) 三月 禁令中  
 下級庶人에게는 紗羅綾段의 衣服을 禁하게 하며 貴  
 賤을 엄히 가르고 文羅花綾을 着用하는 婦人은 그  
 罪로 罰을 주었다.(宣泰奉使)

忠烈王 二十二年(A.D. 1296年) 十月에 王과 公主가  
 紫羅十匹과 白苧布百匹을 몸소 元京에 가서 獻物했다.

鷄林志 染采에 「高麗 染采을 잘 한다. 紅紫도 紗  
 하다. 紫草大梗牧丹과 같다. 汁을 壽하여 帛染色을  
 甚히 한다.」

宋史 卷百五十三 與服志 第百六與服五에 依하면  
 「公服風朝服謂之具服 公服從省今謂之常服 宋因割制  
 三品以上服紫 五品以上服朱 七品以上服綠 九品以上  
 服靑…」

以上에서 紫色을 특히 잘 염색한 듯하며 목단부리  
 만큼 큰 紫草(주치)를 찢어 汁을 내어 염색한다 하였  
 으니 朝鮮朝에서 하던 方法은 이에서 발전한 것이다.  
 그 以外는 朱, 綠, 靑, 紅染과 絳醞(분홍색) 緋, 帛, 玄의  
 色으로 染色하여 織造되기도 하고 織物에 紋樣을 各  
 色으로 염색하여 나타내기도 하였다.

宋 神宗이 王의 公服을 賜與할 때 染織이 紫花羅  
 夾公繡 淺色花羅 汗衫 紅花羅繡夾三擔 紅花羅繡夾包  
 肚 紅花羅繡勤帛 白綿綾夾 紅透背袋盛紅羅繡複 等이  
 다.

高麗史 志卷 二十六與服 朝服 恭愍王 二十二年 十  
 一月 「象笏 紅草 帛鞞紗 羅朝服 皆非本國六産 今後  
 侍臣外東匹班 五品以下 用木笏角帶紬紵朝服」

以上에서 宋의 各色 花文織物이 高麗의 織物과는  
 비교가 되며 麗末에는 朝服에 쓰이는 高麗産이 아니  
 므로 紵朝服을 東西班 五品以下에 着用케 함은 麗末의  
 染織物 生産의 不振을 말함이다.

三國을 거치는 동안의 훌륭한 織物과 우수한 技能  
 人이 그 間에 外國에 심은 韓國文化는 훌륭한 것이  
 로되 그 개인으로 볼 때 家族과의 이별 등의 불행한  
 技能人이 되기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계속 더 심해지는 朝貢의 дук족이 高麗에 와서는 더욱  
 심해지므로 훌륭한 技能人을 外國에 빼앗기는 한편  
 남아있는 匠人들 또한 자손에게 계승시켜 대대손손의  
 자랑스런 가업으로 남기기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외  
 국에서의 쓸쓸한 生보다는 國內에서의 안락한 生活을  
 원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國內의 經濟事情 또한 高  
 級絹織物을 장려할 수 없었던 여러 원인이 高麗 染  
 織物의 지조한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 4. 朝鮮時代

斥佛崇儒를 國是로 삼은 朝鮮은 開國初부터 札를  
 전면적으로 철저히 실행해 나갔다. 經國大典등의  
 편찬으로 國家의 紀綱을 세우려 하였으며 이의 일환  
 으로 복식의관 장신구 등에 남다른 관심을 경주하였  
 다. 따라서 복식의 염색이나 모양을 국가에서 통제  
 하여 어느시대보다 복식에 의한 계급의식을 선연히  
 나타냈던 시기가 되었다.

國初에 太宗은 百姓에게 白衣着用을 금하게 하였  
 으며 朝官의 冠服을 制定하였다(석주선, 1971). 이 경  
 우의 白色着用의 금지는 思天思想의 한 단면을 보여  
 주며 朝鮮의 染料開發에 박차를 가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그 結果 緇, 玄, 素, 絳, 緋, 纁, 縹, 緗, 參 등을 基本으로하여 점차 染色이 發展되었으며 中間色이 늘어 연두색, 草綠, 다홍, 진황, 일남, 남송, 洋藍, 반물, 玉色, 靑色, 眞紅, 松花色, 白色, 洋王色, 眞粉紅, 紫赤, 취월장, 회보라, 藍色, 粉紅, 雅靑, 灰色, 柳綠, 黃色 등 다채로운 빛깔이었다.

前述한대로 우리나라 염료의 始宗은 雅靑, 혹은 쪽물인데 이것은 잎과 줄기를 利用하여 着染한 것이었다. 옷감에 染色하기 시작한것은 상류사회에 제한되어 있었지만 이미 오래된 일이었다. 다만 庶人은 庶人이라는 制約 밑에 常時 白衣에만 의존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朝鮮 초에 白色의 着用을 禁함으로써 朝鮮 時代에는 보다 활기찬 염료의 개발이 가능했던 것이고 이 중에서 大宗을 이루는 것은 삼국시대부터 一般化 되지는 않았지만 그 製造 方法이 알려진 쪽물 染色이었다.

우선 藍(쪽물)의 문헌적 고찰을하고 다음으로 一般植物染色을 논의하겠다.

崔南善의 「朝鮮常識」에 의하면

「成宗朝에 雅靑, 草綠, 木紅, 三色으로 定하였다.」라고 하여 公服에서는 品識者 以外는 대체로 靑色 즉 쪽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世祖二年 7월에 左議政 韓確의 家僮을 불러 賜衣한 것으로 당시의 服飾生活을 엿볼 수 있다.

〈표2〉 服飾에 染色된 色名과 布名(文化史大系, 1971)

色	服次	單 袂	服名
鴉靑	線布	單	團領
灰色	"	袂	塔胡
柳靑	紬	"	貼裏
白	紬	"	裏肚
土紅	綿布	"	直領
黑	麻布	"	貼裏
白	苧布	"	"
黑	斜皮	"	油靴

위 〈표2〉를 보면 鴉靑, 柳靑등의 色은 쪽물을 染色했던 것으로 당시의 服飾에 染料로 사용했음을 시사해 준다.

또 續大典(영조 22年間)에는 當上官은 藍色, 當下官은 靑玄色의 官服을 입도록 지시했으며 이때는 지배계층인 상류사회에 쪽물 사용이 이미 빈번해졌음을

알수 있게 한다.

朝鮮 후기에서 쪽물의 사용 빈도가 더욱 많아진다. 高宗 때 입던 韓服에서 쪽물이 사용된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一品의 祭服은 靑綱衣, 着用, 三品 公服은 正三品 靑袍를 着用, 成服은 藍色 帖裏, 四品, 祭服 五·六品の 七, 八, 九品도 역시 祭服에 靑綱衣를 着用하였고 또 公服의 靑袍를 착용하였다.」(황와근, 1976).

이렇게 관복과 제복의 대부분이 쪽물을 染色한 大宗을 이루고 있다.

흉배에도 쪽물은 사용이 되었다. 沈靑色 紗 또는 緞에 品位를 가려 다양한 문양을 수놓아 사용하였으며 巾에도 쪽물은 使用되었고 別監은 紫巾을 世子官 別監은 靑巾을 썼다(황와근, 1976).

軍服에도 쪽물 染色을 했다는 것이 實錄에 전해지고 있다. 「太宗 六年 七月 豊海道 觀察使의 申浩의 上言에 따라 諸道軍士의 「靑色防衣」를 定하였다(황희, 대종실록)」.

世宗 實錄에도 군복에 쪽물 染色을 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甲冑안에 있는 裏衣에 對하여 실록에 靑, 靑色, 雜色으로 하기도 하였다(심재완, 1968).

쪽물은 이밖에도 一般 庶民들의 實生活에도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불의 통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前述한 바와 같이 혼인 의례에 널리 사용된 화관 쪽두리와 투락 땀기에 쪽물 染色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染色하기전의 色에 對한 心理 및 哲學의 배경을 논하면, 朝鮮時代의 服色은 前時代와 마찬가지로 그 中心은 中國의 陰陽五行說에 根本을 두고 五方正色이 근간을 이루고 있었으며 새로운 哲學 理論과 染色術의 등장으로 여러가지 間色이 생김으로서 前時代에 비해 衣服의 色이 더욱 多樣化되었고, 이에 따라 服色禁制 또한 前代에 비할데 없이 까다로웠다. 本 植物染色의 研究를 위해 朝鮮時代의 服色을 五方正色인 黃·赤·靑·黑·白色을 中心으로 살펴며 各色에 해당되는 植物染料를 살펴보았다.

朝鮮時代의 服色에 있어서 노랑색 계열에 들어가는 黃·淺黃·玄黃·米黃·松花色·茶割色·土紅色 등이 있었다. 黃色은 중국 古代로 부터 만물의 주성분이 된다는 五行 중 土에, 五方 중 中央에, 五德중 生出의 德을 상징하는 土德이라고 높이 평가되어 황제의 服色으로 崇尚되어 왔다(임서운, 1983). 이러한 중국의 影響으로 우리나라에서도 黃色이 新羅 선덕왕 이래 高麗에 이르기까지 王의 服色으로 規定되어 一般에게는 그 使用이 禁止되어 있었다. 朝鮮初에 이르러서도 一般人的 黃色옷 禁制는 마찬가지로였으며 태종 6年 이후 내려진 黃色禁制는 王 자신도 黃色을



입지 않았다(류희경, 1975).

한편 黃色을 물들일 때는 梔子を 民家에서 흔히 栽培하여 飲食物 및 衣類 등의 染色에 널리 使用하였으며, 이외에도 황백나무껍질, 회화나무의 꽃, 물푸레나무의 껍질, 매자나무의 껍질 등으로 黃色을 물들였고, 다할색은 정향나무, 감나무, 밤나무, 참나무 수수의 대와 잎을 利用하였다.

붉은색 系列에 속했던 朝鮮時代의 服色으로는 正色인 紅色을 비롯하여 다홍색·淺紅色·꼭두서니·연지색·비색·주황색·분홍색·桃紅色·紫色 등이 있었다. 이중 正色인 赤色은 汚行法上 火生土로 연화의 德을 상징하고 있으며 方位로는 南쪽, 季節로는 여름에 해당하는 色으로 朝鮮朝에서는 紅色을 王의 服色으로 正하였던 것이다. 또한 色의 강도를 약간 一般人에게는 紅色이 禁止되어 있었다. 이처럼 朝鮮初中期에는 權力的 상징으로 末期에는 부녀자들의 服色으로 脚光받던 붉은색은 꼭두서니, 紅花, 홍수피의 껍질, 蘚枋木의 深材, 연지, 오미자 등으로 染色하였다. 특히 붉은색 系列 중에서 독특한 色彩 感覺으로 朝鮮人들의 服色을 꾸며 주었던 紫色은 紫草의 뿌리를 이용하였다.

푸른색 系列의 色名으로는 靑色·雅靑色·갈매색·碧色·검푸른색·반물색(deep blue)·沈靑色·綠色·柳綠色·豆綠色 등이 있었다. 이중 正色인 靑色은 五行法상 本位로 東邦을 나타내는 色이라 하여 흰옷을 즐겨 입던 당시 土庶民에게 흰옷대신 항상 권장되었던 色이었다. 官中에서는 성종 이전까지 王世子の 服色이 綠色이었고 白官의 복관이 鵝靑色, 또한 대비 중전의 치마가 남스란 또는 남대란이었으며, 靑色은 一般에게도 허용되었던 색인 만큼 조관에서 선비 그리고 평민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었으며, 옷옷으로 입혀졌던 도포의 吉服이 靑色이기도 했다. 이상 살펴본 푸른색의 染料로는 藍, 닭의 장풀이 가장 널리 使用되었고 그밖에 다편의 잎, 수장나무의 열매 등이 쓰이기도 하였다.

검은색 系列에 포함되었던 朝鮮時代의 服色으로는 黑色·검정색·玄色(black)·淡色 등이 있었다. 이들 중 正色인 黑色은 五行法상 任養의 德을 상징하고 있었으며 方法으로는 北, 季節로는 겨울에 해당되는 色이었다.

朝鮮朝의 黑衣의 예로는 태종조 이후 議政府의 宴

후에 참여했던 娼妓의 衣服을 들 수 있으며 세종때 이후 조관의 이후 조관의 평상시 조회복을 들 수 있다. 당시 검은색으로 물들이는데 使用되었던 染料로는 갈매나무 껍질, 가래나무의 열매, 진달래를 태운 재, 물푸레나무를 태운 숯의 분말 등이 있었다.

이상 살펴 보았듯이 植物染料로는 高麗時代보다 훨씬 많은 數의 染料가 開發되었고 染色法도 많은 發達을 하였다.

## 引用 文 獻

- 海東繹史, 卷二十, 券十八.  
 朝鮮總督府中樞院: 高麗以前 風俗關係資料提要(1945).  
 泥萍, 後漢書 卷 白十五.  
 李能和, 朝鮮女俗考.  
 李如星, 朝鮮服飾考 參照.  
 金富弼, 二國史記, 卷 三十三.  
 石宙善, 韓國服飾史, pp. 18-19.  
 柳善卿, 「韓國服飾史研究」, (서울: 梨花女子大學出版部 1975), p.53.  
 趙孝順, 「韓國服飾風俗史研究」, (서울: 一志社, 1988), p.338  
 李良璧, 韓國織物染色考, pp.208-209.  
 區陽修, 唐書 卷二百二十.  
 石宙善 「韓國服飾史」 서울: 寶善齋, 1971, p.20.  
 濱口良光, 朝鮮の工藝, 參照.  
 韓致淵, 海東繹史 卷二十八 正祖.  
 權 將, 海東雜錄 卷 李朝中葉.  
 맹인재, 「韓國의 民俗工藝」 서울: 教養國史叢書, 1979), p.24.  
 金用淑, 「문헌을 통해본 전통 색채명」 서울: 현대미술관, 1991.  
 石宙善, 無形文化財, 調查報告書 第 48號, 1968.  
 일연, 삼국유사, p.188.  
 孫 穆, 「鷄林志」 「高麗善染采紅紫草大使如牧丹壽汁染 帛甚鮮」  
 徐 競, 高麗圖經 卷七(豆細豆 文化史, 1972), p.38.  
 徐 競, 高麗圖經 卷二十一(亞細亞 文化史, 1972), p.113.  
 芮膺海, 人間文化財 參照.  
 宣私稟使, 高麗圖經 卷 20.  
 文化史大系 p.60, 1971,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黃瓦根, 韓國裝身具美術研究(一志社 1976, pp.364~365).  
 黃 喜, 太宗實錄 卷二十 六年七月 十面.  
 鄭 趾, 世宗實錄 卷八十二 二十年二月 十九面.  
 沈載完, 新羅伽倻文化研究所, 嶺南大學校, 1968, p.2.  
 林端雲, 古代東洋服色制度의 比較研究, 成均館大學校衣 裝學科 碩士學位論文, 1983.